서 분수가 올라오니 연수는 또 깡충거리며 즐거워한다. 나 혼자 한쪽으로 가 조각품들을 둘러본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조각이다. 집사람을 불러 같이 보다가 얼른 눈을 돌렸다.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은밀한 인생사까지 무분별하게 저리 노골적으로 표현함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공감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옛날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앞 역전에 높이 세워져 있는 커다란 동상을 본 적이 있다. 남자의 성기 위에 여자를 올려 세워 춤을 추게 한 장면이다. 처음 직관적으로는 지나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희화적戱畵的인 것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소나무 공원으로 가 산책을 했다. 오솔길을 걸어 혼자 숲속 깊이 들어가 봤다. 산짐승이 있다면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우리나라 소나무보다 키는 훨씬 커, 높이 뻗어 하늘을 가린다. 밀식된 소나무 사이는 그리 큰 여유가 없다. 빽빽이 들어찬 소나무 숲속을 걸으니 맑은 공기가 뼈속까지 스며든다. 온몸에 시원함을 느끼다 못해 하늘로 치솟는 기분이다. 독일에는 소나무 숲이 유난히도 많다.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가 소나무를 두고 ‘ 망국의 나무 ’라 비하한 적이 있다. 지금 독일의 많은 소나무 숲을 보며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오늘 점심에는 김치식당에 가기로 했다. 거기서 연수네 가족이 이곳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 교회 분들에게 점심대접을 할 생각이다. 바로 그 식당으로 갔다. 2층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이나 깨끗하다. 김치를 비롯하여 한식으로 된 부페식이다. 식사중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다. 베를린은 원래 1천만 인구를 상정해서 도시 인프라를 만들었음에도 현재는 3백만이 사니 매우 쾌적하다는 것을 비롯하여 유럽 전체가 몇십년 전과 비하여 별 변화가 없다는 것, 독일에는 교외에 있는 고압선 이외는 겉으로 보이는 전선이 없다는 것 등의 대화가 있었다. 환경보존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도 다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독일의 치안은 세계 제일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 비결은 경찰의 자세에 권위와 절도와 기강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범죄를 가혹하다 할만큼 엄격하게 다스리는 데 있다고도 했다. 통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차츰 다 극복되고 이제는 다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기술대국이 되고자 질주하고 있다는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미 통계수치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통일이 부담스러워 소극적이 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도 우리는 좌우의 대립이라는 역사반복의 굴레에서 다시 허우적거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교회 분들은 모두가 우리 연수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 듯했다. 연수의 지능이 거의 5,6세 수준이라는 것과 앞으로 천재교육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말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여러번 변화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말을 했다. 다만 내가 보기에도 우리 연수에게는 좀 색다른 면이 있는 것같기는 하다. 태어나 맨 처음 산모 방으로 첫 모유를 먹이러 왔을 때 눈을 뜨며 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담당 간호사도 ‘ 얘는 태어나면서 무슨 표정을 짓더라 ’는 말을 이미 했단다. 그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른다. 다만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뿐이다. 나는 이미 첫돌 전에 사위에게 “ 자네들 두 사람 지혜 다 합쳐도 연수 하나 못 따를 테니 정성 드려 잘 키워야 한다 ”고 이른 적이 있다. 지자막여부知子莫如父라 했던가.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못잖게 늘 안아주고 어르고 돌보며 키웠다. 앞으로도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이라 생각하며 기를 것이다.

11일은 내가 베를린에서 두번째로 맞는 일요일이요, 마지막 일요일이기도 하다. 이날은 어린 연수가 교회행사에 나가는 날이다. 예배순서에 따라 어린이 몇이 단상에 올라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한단다. 연수보다 훨씬 더 큰 아이가 단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울며불며 떼를 쓴다. 기어이 올라가지 않는다. 연수는 가장 어림에도 태연히 단으로 올라간다. 여유로운 자세와 표정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큰 아이들보다 표정은 더 여유로워 보인다. 미리 연습을 시키지 않았던 탓으로 노래와 율동은 큰 아이들을 따라 약간씩 흉내만 낼 뿐이다. 연습을 시키지 않았던 것은 어린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연수를 데리고 나와 모래놀이도 가고 놀이방에도 잠시 들렀다. 내일은 프라하로 기차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일찍 들어가 쉬기로 했다. 비엔나나 부다페스트같이 보고 싶은 곳이 많음에도 굳이 프라하로 여행지를 정한 것은 소비에트 정권하에서 있었던 ‘ 프라하의 봄 ’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프라하의 봄이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체코의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저항하여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시키는 저항운동의 단초가 되었다고 믿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나에게는 무엇인가 마음상하는 일이 생기면 무작정 나가 걷는 버릇이 있다. 그날도 의외의 일이 생겨 밤 열한 시 반이 넘은 시간에 집을 나와 혼자 무작정 걸었다. 내일의 여정도 잊은 채 한 시간을 가고 한 시간을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걷는다. 베를린의 밤거리는 비교적 조용하다. 가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경찰차의 경적 소리만이 요란하다. 낮에는 어디에서도 경찰 한 사람 보이지 않았다. 길가의 맥주집에서는 보행로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면적에 많은 의자를 내어놓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런 장면은 서울 거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한 시간을 걷는 동안 그런 곳은 여러 군데 있었다. 젊은 주정뱅이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내 뒤를 따른다. ‘ 독일인이 아니라 ’는 말을 연달아 내어뱉는 것같기도 하다. 그러다가는 길가에서 술마시는 사람들의 옆으로 다가가 내가 걷는 쪽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호응을 요청하는 듯이 보였다. 누구도 호응하지 않자 다시 내 뒤를 슬금슬금 따른다. 나는 뒤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꼭 같은 보조로 계속 걷는다. 내가 오스트랄리아의 멜버른에 가 있을 때다. 한 늙은 술주정뱅이가 뒤를 따르면서 ‘ 유색인종은 나가라 ’고 외쳐대는 일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태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베를린의 밤깊은 거리도 느껴볼 수 있었다. 밤 한 시가 되자 길가의 술손님도 다 사라지고 거리는 더 조용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두 시 반이 좀 지나고 있었다. 자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金나라 태조 태사공 후예설

東溟 김세렴의 ‘ 해사록海槎錄 ’에도 나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太師公 휘 행幸에게는 아들이 낭중공郎中公 휘 인행仁幸 1인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낭중공이 태사공의 장남으로서 고려 개국초의 정책상 서울 송도松都에 볼모유학을 갔지만 그 차남은 경순왕敬順王이 신라 사직을 바쳐 고려에 항복할 때 이에 불복 통곡하며 많은 무리와 함께 개골산蓋骨山으로 북행할 때 신라 왕족으로서 거기에 합류하여 만주滿洲의 길림吉林으로 가 터를 잡고 그 후손이 요동遼東으로 진출하여 뒤에 금金나라를 세웠다.

이와 같은 설은 본지의 권기석權奇奭 객원기자가 본지 2003년 3월 1일자 제51호부터 2004년 1월 1일자 제61호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 권문權門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태사太師의 제국帝國 ’이라는 이름으로 추적 발굴하여 광범하게 분석、고증한 연구논문을 연재한 바 있다. 이 연재에서 권기석 기자는 중국의 ‘ 금사金史 ’등을 광범히 섭렵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고문적을 두루 발굴 고증하여 그 자취가 전설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다각도에서 밝혀 관심있는 독자의 주목을 끌었었다.

그뒤 2006년 12월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재야사가 윤명수尹明洙씨가 ‘ 금조사연구金朝史硏究 ’라는 책을 저술하여 ‘ 완안출판사完顔出版社 ’라는 곳에서 발간하였는데, 이 저서에서 윤명수씨는 우리 안동권씨의 시조 태사공이 금金나라 시조 함보函普의 부친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윤명수씨는 이 저서에서 금나라 황실이 태사공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동명東溟 김세렴金世濂의 저술 ‘ 해사록海槎錄 ’의 기록을 크게 인용하고 있다.

근자에 우연히 다른 자료를 구해 뒤지다가 ‘ 해행총재海行摠載 ’라는 전집 속에 있는 동명의 ‘ 해사록 ’에서 윤명수씨가 발굴해 인용한 부분을 발견하여 읽어보게 되었다. 해사록은 병자호란이 나던 인조 14년, 1636년에 당시 응교應敎로서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通信使의 부사副使가 되어 일본에 다녀온 동명 김세렴이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의 사행을 일기로 쓴 책이다. 그 일기의 1636년 9월 3일자에 관련기사가 나오는데 이를 발췌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초3일 갑진甲辰 흐림. 경주慶州를 떠나 봉황대鳳凰臺에 올랐다. 대는 홍살문 밖에 있는데 높이가 수십길이다. 흙을 쌓아 만든 것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성남쪽에 거의 열이나 벌여있어 옛 도읍이 반드시 대의 남쪽에 있었음을 상상케 한다. 반월성半月城이 남에 있고 김유신金庾信의 묘가 서에 있고 포석정鮑石亭、첨성대瞻星臺、금장대金藏臺가 다 아득히 바라보인다. 신라가 나라를 세운 것이 천년 동안이요 삼한三韓을 통합하였으므로 한때의 문헌이 찬연하여 볼만하였으나 너무 부처를 섬기기에 힘써 절이 여염에 두루 찼으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랴. 계림 금궤鷄林金櫃의 설이 비록 국사國史에서 나왔으나 야인野人의 말이라 상고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는 나라안의 김성金姓이 반 넘어 신라의 후예이고 김부金傅(경순왕敬順王)가 비록 항복하여 고려왕이 합병하였으나 그 외손 완안아골타完顔阿骨打는 곧 권행權幸(안동권씨 시조)의 후예로서 능히 중국을 갈라 다스려 백년 동안 대를 이었으니, 어찌 이른바 신명神明의 후예라는 것이 아니랴.

初三日甲辰 陰. 發慶州 登鳳凰臺 臺在紅門外 高數十丈 言是築土所成 若此者 羅列城南殆十數 舊都想必在臺南矣. 半月城在南 金庾信墓在西 鮑石亭瞻星臺金藏臺 俱莽蒼可望. 新羅立國千年 統合三韓 一時文獻 燦然可觀 事佛太勤 寺刹遍於閭閻 豈不惜哉. 鷄林金櫃之說 雖出國乘 野人之言無稽 至此但見 國中金姓 太半新羅之後 金傅雖降而麗王幷其外孫完顔阿骨打 卽權幸之後 乃能宰割中國 傳世百年 豈非所謂 神明之後者耶.

이 부분에 대하여 금조사연구의 저자 윤명수씨는 다음과 같이 그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금시조金始祖에 대하여는 ‘ 고려사高麗史 ’에 김행金幸의 후손이라는 설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김세렴金世濂의 ‘ 동명해사록東溟海槎錄 ’이다. 우선 김세렴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그의 경력을 보자.

선산김씨善山金氏인 김세렴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도 전해진다. 1616년 장원급제하여 1617년 폐모론 주장자를 탄핵하다가 곽산으로 유배된 점은 그가 얼마나 정의에 강하고 강직한 인물이었던가를 말해준다. 김세렴의 장인(외조부?) 허봉許蓬도 소신있는 주장을 펼치다가 유배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유배까지 감수하고 임금께 탄핵을 요구하는 강직한 성격의 고급관리이며 당대 최고의 대학자가 금시조와 관련하여 함부로 부정확한 기록을 후세에 남겼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는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의 동부승지를 지내 국가기밀에 접할 수 있는 조정의 요직에 있었다. 아울러 함경도관찰사、평안도관찰사、안변부사、대사헌 겸 홍문관제학、도승지、호조판서 등 고위관직을 지내 조정의 상당한 최고급 정보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세렴의 주장에 신뢰도를 가중시키는 것은 그의 가족관계이다. 금시조 함보函普의 형으로 간주되는 김인행金仁幸(낭중공郎中公 권인행權仁幸)의 부인은 양천허씨陽川許氏로 알려졌는데 김세렴의 어머니가 양천허씨이다. 당초 어떤 사연에 의해 선산김씨 김극건金克健 가문과 양천허씨 허봉 가문간의 혼사가 맺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양천허씨 가문에서는 김인행의 부인을 통하여 금시조와 관련된 함보 3형제의 정보를 알았을 것이고, 이는 시대적으로 매우 오래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세렴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權五焄>